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마 5:37)

기독일보

이문규법률그룹
www.leekent.com
대표전화 : 213-380-2828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27, 2011 Vol.277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한인교회 평신도를 하나로'

OC기독교전도회
연합회 임원
이·취임예배 드려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 2011년 신임 임원들. ©지재일 기자

오렌지카운티지역 한인 교회 평신도가 하나 되어 협력할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OC전도연합회)가 23일(주일) 저녁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다.

OC전도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손찬우 집사(은혜한인교회)는 "지역 평신도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선교하는 단체로 이끌어 갈 것"이라며 "하나 되는 일에 협력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OC전도연합회는 각 교회에서 골고루 임원을 영입하고,

연례행사 중 크게 치러질 연합 성가제나 연합 부흥집회, 연합 체육대회 등의 참여교회를 늘리기 위해 고심 중이다.

또한 매년 이어나가야 할 연례행사의 발전을 위해 1년 후의 계획을 미리 세워,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어 갈 계획이다. 손찬우 집사는 "지난 30년간 헌신들이 밀거름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며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함께 취임한 이사장 임

재선 장로는 "이사장직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해 세워주셨으니 여러분과 함께 일을 수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한 박용덕 목사(오렌

지카운티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삶의 깊숙한 곳에서 드러내는 평신도들의 충성과 헌신이 정말 귀하다"며 "이 같은 헌신이 모인 연합회가 더욱 아름답게 발전해 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손태정 목사(오렌지카운

티목사회 회장)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 소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해야 할 것"이라며 "그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임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OC전도연합회는 지난 1981년 창립했으며 올해로 31대 회장, 28대 이사장이 각각 취임한 것이다.

OC전도연합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7시) 정기 조찬기도회로 모이며, 멕시코 단기선교,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연합 전도부흥집회, 교회연합 체육대회, 광복절 기념 감사예배, 교회연합 성가제, 선교구제기금 모금 행사 등의 연례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문의: 714) 719-3816(OC전도연합회 이승용 총무)

(박삼미 기자)

이민사 최초 '북미주 한인교회 실태조사' 실시된다

설문조사 후 2012년 북미주
한인교회 백서로 발간 예정

미주 이민 108년의 결코 짧지 않은 역사와 함께 한인교회가 성장해 왔다. 현재 한인교회는 선조들의 신앙 유산과 전통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져 '이 시대 영적 부흥의 세대'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는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한인교회는 1세

대와 2세대의 갈등, 교회의 세속화와 쇠퇴, 이민신학과 목회철학의 부재, 복합문화에 대한 이해부족(특수성, 리더십 등), 타 민족에 대한 배타성 등의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셔널 서베이 위원회'(조직위원장: 박희민 목사)와 '이민신학

연구소'(소장 오상철 박사)는 한인교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 현재 미주 한인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을 밝혔다. 즉,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주 4,000여 교회를 대상으로 '2011년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를 108년 이민 역사상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내용은 1세와 2세가 겪고 있는 리더십 갈등에 대

한 방향제시, 2세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조용한 탈출(Silent Exodus)'의 조사 및 그 대책, 이민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복합문화에 대한 이해도 증진, 이민교회가 한인 이민사회에 끼치는 영향, 타 민족에 비추는 한인교회의 모습 등과 다민족선교에 대한 대안이 조사될 예정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총 네 항목으로 1)1세 목회자, 2)2세, 3)평신도, 4)타민족 성도들을 대상

으로 하며, 설문조사 질문 내용은 각 항목당 약 40가지로 구성됐다.

이민신학연구소 오상철 박사는 "2011년 4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북미주 전역에서 1만개의 설문 조사 및 분석 후 2012년 2월 '북미주 한인교회 백서(한글/영문)'로 발간할 예정"이라며 "이민 목회의 특수성과 복합문화 해석을 통한 한인 이민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박사는 "최초로 실시되는 미주 한인교회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은 총50만불이 필요한 사업"

이라며 한인교회들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후원방법은 'The KAIT'로 체크를 보내면 되며, 후원금에 대한 세금은 면제된다.

설문조사는 이민신학연구소 웹사이트 3월 중순부터 www.thekait.com뿐 아니라 캐나다 포함 미주 전역에서 활동할 지역 설문조사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실시할 수 있다. 서베이 1차 간담회는 2월 15일(화), 오전 11시, JJ 그랜드호텔 로얄룸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문의) 714-388-2107

(지재일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동부사랑의교회
East Sarang Community Church

"기독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이공일일 비전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옵소서! [마태복음 14:17~21]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 From Diamond Bar: 60 East > 71 South > Exit & Left Turn on Grand(Edison) Ave. > Left Turn on Central Ave. > Right Turn on Schaefer Ave.
- From Corona & Riverside: 91 West > 71 North > Right Turn on Central Ave. > Right Turn on Schaefer Ave.
- From Rancho Cucamonga & Fontana: 60 West > Exit & Left Turn on Central Ave. > Left Turn on Schaefer Ave.
- From Anaheim & Brea: 91 East > 57 North > 60 East > 71 South > Exit & Left Turn on Grand(Edison) Ave. > Left Turn on Central Ave. > Right Turn on Schaefer Ave.

교	유치부	1부 오전 9:45
		2부 오후 12:30
육	유년부	1부 오전 9:45
		2부 오후 12:30
부	초등부	1부 오전 9:45
		2부 오후 12:30
	YOUTH	오후 12:30

1부 7:30 2부 9:45 장소: 은혜채플 3부 12:30 4부 2:30 장소: 사랑채플

"Holy Wave 비전예배" 수요일여성모임 (마더와이즈 사역) 매주 수요일 오전 9:30 / 은혜채플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el. 909-590-3722 Fax. 909-548-3722 www.eastsarang.com

▶ 캐더린 안 교수, 초대교회적 도시사역과 여성 관계 조명

21세기 도시목회, 여성 자원에 관심 가져야

초대교회의 도시사역과 여성은 어떤 관계였을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여성의 비율이 적다하여 자칫 교회 부익에서만 봉사하고 남성 위주의 교회 리더들 뒤에서 잠잠하기만 했을까?

미주 한인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회 내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풀러신학대학교 캐더린 안 교수는 “초대교회 사역의 핵심적 특징이었던 여성을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파사데나장로교회에서 열린 도시목회 세미나에서 풀러신학대학교 캐더린 안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지난 23~24일 파사데나장로교회(담임 성현경 목사)에서 열린 ‘도시목회 세미나’에서 안 교수는 ‘초대교회적 도시사역과 여성’이라는 주제로한 발제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예수님과 여성의 관계부터 설명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창녀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던 여성들과 대화함으로써 그들을 사람으로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해 주신것”이라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 사도들의 사역

에도 여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안 교수는 “바울서신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 특히 로마서 마지막에는 절반이 여성의 이름이다. 또한 초기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에도 여성의 이름이 압도적”이라며 “그만큼 복음을 위한 사역에 여성들의 역할이 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초대교회는 남자가 함께 세웠다”며 “초대교회의 창조적인 목회를 회복해야 한다면, 현재 잃어버린 여성들에 대한 자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슬람권의 도전이 심각한 이때에 이슬람과 접촉할 수 있

는 접촉점이 바로 여성들”이라며 “이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이 가장 유력하고도 강력한 선교방법”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슬람 선교지역에서 핍박당하는 여성들에게 여성 사역자들이 다가간다면 그야말로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슬람 여성사역은 물론 그것을 위한 여성 사역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더린 안 교수는 현재 여성선교사역센터(Center for Women in Ministry and Mission: CWMM)의 보드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이 사역을 통해 여성 스스로 인간적 존귀와 사역자로서의 디그니티를 올리고, 기독교의 평등과 존중의 문화를 내트워하며, 여성사역을 창조하고 개척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CWMM은 크리스천 여성 사역자,

선교사, 지도자들의 사역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 여성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지역사회와 교회, 선교지 등에서 사역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고 있다.

한편, 도시목회 세미나는 도시지역을 섬기는 다양한 목회와 사역들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LA도 시공동체연구소와 파사데나장로교회가 주최했다.

한국의 도시공동체연구소(소장 성석환 목사)의 LA지부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도시공동체연구소 성석환 목사, 유선주 목사(착한소비네트워크), 은혜의방주교회 김동일 목사, 선한청지기교회 송병주 목사, 평화의교회 김기대 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성현경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다. LA도시공동체연구소는 성현경 목사(파사데나장로교회)가 소장으로 활동한다. <박상기 기자>

연방 및 주정부 지원으로 LA ORT 대학에서

저소득층 시민권자, 영주권자, 유자격자 한인 가정에서 ESL과정, 학비 전액 보조 및 다양한 직업교육 보조금 지급,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1. 비즈니스... (아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2. 건강과 메디칼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약사 보조직, 의사 보조직)
3. 가솔직 (컴퓨터 그래픽과 데스크탑 출판)
4. ESL (기초, 중급, 상급반으로 나누어서 각 4-6등급의 반이 구성됨)
5. 유학생 1-20명씩, 소셜 번호, 워킹퍼밋 도와드립니다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556-5386 Cell. (213)434-8128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히즈유니버시티 6명 '가정사역 박사' 배출

가정사역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은 졸업생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가정사역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대학 히즈유니버시티(HIS University: 총장 양은순 박사)가 2011년 학위 수여식을 거행, 6명의 가정사역 박사들을 배출했다.

지난 21일(금) 크로스로드교회(Corona 소재)에서 개최된 히즈유니버시티의 2011년 학위수여식은 6명의 가정사역 박사들 외에 5명의 교육 및 상담전공 박사, 교육학 석사 5명, 상담학 석사 29

명, 가족치료 석사 7명, 명예학위 3명 등 총 55명의 학생들이 학위를 받았다.

졸업생 대표 임인철 목사(교육학 석사)는 “세상이 아무리 악화되어 가는데, 오히려 끔찍한 사건들의 발원지가 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누군가가 필요하실 것인데, 히즈의 학생들은 가정의 천국이 되는 꿈을 꾸면서 그를 위해 필요한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교 6년 만에 첫 가정사역 박사를 배출한 히즈유니버시티 양은순 총장은 “이 순간을 고대하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전 세계에 그리고 북한에도 대학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평화를 위해 일할 일꾼이 세워질지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예배에서는 풀러신학대학 부총장인 린켄펠터 박사가 설교와 축도를 했다.

지난 2004년도에 설립된 히즈유니버시티는 세계 유일의 가정사역 박사를 배출하는 미국정규인가대학이다. 특별히 결혼, 가족치료(MFT, Marriage & Family Therapy) 석사학위 과정은 영어 이외에 다른 모국어(한국어)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미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 <박상기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지재일 광고국장 : 이안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번호 : (213) 739 - 0408
주소 :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허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법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법, 도박, 마약, 음주운전, 시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이력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고객과 함께하는 것이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는 것을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의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늘 고민합니다. 고객들의 참된 동반자로, 때로는 강직한 대변인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특별상담]

- 비자 거절
- 영주권 거절
- 추방재판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 & 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대 (LJ)대학원 졸업(1993년) Univ. of Missouri 정법학 및 국제학 석사(1989년)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변호사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법 변호사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회장 미주 상용법 총 연합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dert, Brothers, 근무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비자법 전문 컨설팅 해설

이민법 [Immigration]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종교비자·종교이민·가족이민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추방재판, 불법체류 구제 비자거절·항소

상법 / 소송 [Business / Litigation]

- 민사(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법 행사,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상법(계약체결·위반)

파산법 [Bankruptcy]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신용 문제 상담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콘길타워 1904호 822-510-5200

최민 목사가 전하는 '중국 대륙을 휘감는 성령행진'

“중국교회는 머지않아 21세기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 최민 목사

하나님의 은혜로 약동하는 중국, 변화하는 중국에 대한 생생한 스토리가 책으로 엮여져 나왔다. 중국 연변에서 태어나 조선족 제 1호 목사로 잘 알려진 최민 목사의 다섯 번째 저서 '중국 대륙을 휘감는 성령행진'이 출판돼 21일 출판감사예배를 드렸다.GMCC 선교회와 크리스천뉴스위크가 주최하고, 어게동무사역원이 협찬한 이번 감사예배는 현병훈 장로(GMCC선교회 전 대표)의 사회로

진행했으며, LA비전교회 담임 김대준 목사의 기도, LA장로 중창단(단장 정진식 장로), 셋별선교 합창단(단장 이봉조 선교사)의 특별찬양 순서가 이어졌다.

설교는 세계웨슬리안교회 회장 차현회 목사가 '중국의 바울(행 16:6~10)'이라는 제목으로 전

을 증거하기 위해 중국의 기독교 전파 현황과 동포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 **중국 대륙의 도시 가정교회 확산은 획기적인 사건**

최근 20년간 중국 기독교 복음 전파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던 도시 가정교회의 발전, 확산

적인 부흥을 의미한다.

◆ **확산되는 도시 가정교회의 특징**

중국 가정교회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도시 가정교회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다. 2008년 5월 중국 대륙 중심부를 강타했던 쓰촨 성 대지진 사건 당시, 민간 자원봉



최민 목사

나타내고 있음을 말해준다.

◆ **중국 '세계적 성경 생산국', 연간 1,200만권 출판**

중국에서 성경 열풍이 불고 있다. LA타임스는 최근 중국에서 불

고 있는 성경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신론 국가를 세계 최대 양서 생산국으로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20년 전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난징의 친성출판사는 최근 새로운 설비를 들여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연간 1,200만권의 성경을 출판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총5,000만권 이상의 성경을 인쇄했다. '중국인 기독교자선'과 영국에 기반을 둔 '연합성경협회'가 합자하여 설립한 이 회사에서 75개 이상 언어로 인쇄된 성경이 60개 이상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인쇄된 성경의 대부분은 중국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중국 대륙을 휘감는 성령행진 중) (지재일 기자)

지난 21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출판감사예배 드려

했다. 인사말을 전한 최민 목사는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들의 도움으로 이번 책이 출판됐다"며 "GMCC 선교회 파송으로 중국 대륙을 위한 전도에 나선지 3년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

을 짊어질 수 있다. 지금 중국에 확산된 도시 가정교회는 대략 100만 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독교인 총 숫자인 약 1억명 기독교인 숫자 중 삼자교인 수 3천만 명, 그의 가정교회 7천만 명의 배에 달하는 획기

사자가 100만명에 달했는데 인삼적인 것은 그 중 기독교인이 63만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재난 후원금 1,000억 위안 중 크리스천의 기부액이 115억 위안에 달했다. 이는 중국 크리스천들이 서서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봄 학기 개강예배에서 유학생들이 찬양하며 기도했다.

USC캠퍼스에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남가주대학연합교회 봄 학기 개강예배 드려

USC 캠퍼스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소리가 울려 퍼졌다. 봄 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기 위해 40여명의 한인 유학생들이 20일(목) 저녁 USC Taper Hall에 모였기 때문이다. "캠퍼스에서 이 같이 찬양소리가 울려 퍼진적이 없다"는 어느

학생의 말처럼, 문들 사이로 새어나간 찬양소리에 많은 학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기도 했다. 그러다 자신이 아는 영어찬양이 나오자 함께 부르기도 했다. 남가주대학연합교회에 다니는 USC와 UCLA 학생들이 주축이 된 이번 개강예배는 벤츄라강

리교회 최상훈 목사가 설교하고 남가주대학연합교회 출신이 조직한 워싱턴 HG2W의 인도로 진행됐다.

최상훈 목사는 창세기 39장 1~6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왜 미국에서 공부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했다. 최 목사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여기 있지만, 하나님에 보는 형통함과는 다르다"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

변사람들도 유익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함"이라고 말했다.

설교 후에는 대학과 캠퍼스의 영혼들을 위해 다함께 기도했으며,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에 참석한 학생은 "한국에서는 캠퍼스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며 "오늘 개강예배는 그만큼 뜻 깊고 감격스러우며 감사한 자리"라고 말했다.

<박삼미 기자>

한인 목회자들을 위한 신년세미나 '그리스도를 닮자'

남가주한인목회자 신년 목회세미나 및 평신도신년 축복성회가 오는 1월 27일(목)부터 29일(토)까지 리폼드대학교(총장 조주

27일부터 3일간 리폼드 대학교에서 개최

호 목사)에서 개최된다. '그리스도를 닮자'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 중 매일 오후 7시 30분에는 평신도 신년축복성회가 개최된다.

주강사로 초청된 김성길 목사(시온교회 담임)는 '그리스도를 닮자'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담임)는 '교회를 부흥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

혜 나눔'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Dr. Rudy Cerullo 총장은 크리스천 카운슬링을 위한 'Healing of the Soul'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일정: 2011년 1월 27일(목)~29일(토), 세미나: ▲10am-12:30pm, ▲2pm-4:30pm, ▲평신도 축복성회: 7:30pm 장소: 리폼드대학교 신학대학원 본당 1342 W. Adams Bl. Los Angeles, CA 90007-1635 문의) 김원락 목사(818-337-8280) <지재일 기자>



김성일 목사



최홍주 목사



Dr. Rudy Cerullo 총장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CA LIC #0C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료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사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풀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간판부 Tel :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동부사인&트로피

동부 교회협의회가 기독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회장: 아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
부회장: 엠마오장로교회 김민섭 목사
총무: 주님의교회 김병학 목사
회계: 하늘샘교회 김형구 목사
글로벌선교회 김지성 목사
나성한미교회 전병주 목사
갈보리복음교회 이달은 목사
뉴하트교회 권홍량/박문환 목사

기쁨장로교회 이승재 목사
나성교회 정동석 목사
동부가나안교회 백정수 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박승규 목사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
디베라장로교회 황인식 목사
로고스교회 김명선 목사
미주새벽교회 이정석 목사

반석위예세운교회 김성철 목사
브리지교회 장세정 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고태형 목사
선한침지기교회 송병주 목사
성화사랑의침례교회 이종철 목사
예수사랑은혜교회 하만진 목사
유니온교회 문병용 목사
은성교회 황영길 목사

주님의교회 김병학 목사
중앙침례교회 장철훈 목사
축복교회 김인경 목사
크로스로드교회 전길성 목사
한빛성결교회 차광일 목사
호민교회 이정석 목사
호산나교회 라세영 목사

[새벽강단 28] 감사한인교회 새벽예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 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영길 목사는 안수기도를 베풀며 성도들을 섬긴다. <본문: 창 12장 1~3절>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새로운 땅에서 믿음의 가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미국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가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민 성도들을 심방할 때도 믿음의 가문이 새로

어 보여도 삶의 질과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미국에서 나오신 해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는 소망. 이 소망 때문에 미국 오길 잘 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고향은 우상이 만연한 곳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런 곳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현재가 어떠한 약속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는 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으로 인해 창대하게 되기를, 이 결심과 기도를 가지고 한해를 사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법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서 믿음과 축복의 가문을 물려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됩니다. <박상미 기자>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는 신년을 맞아 20일 다니엘새벽기도회를 진행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미국에서 힘든 이민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로부터 믿음의 가문이 시작될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짐했다. 특별히 김영길 목사는 “다음세대에 물려줄 것은 믿음의 유산 뿐”이라며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대대로 번창하길 바란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밖에 보여줄 것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감사한인교회는 신년 다니엘새벽기도회에 이어 8월에도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지며,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나와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김

감사한인교회 김영길 목사

“믿음의 가문 일으키는 한 해 되기를”

시작되오니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있지만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물려줄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오신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서, 지금 우리 세대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첫 세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잘 안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가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똑같은 이민생활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들



김영길 목사

빅토밸리 지역사회 섬기는 ‘건강대축제’ 성황



빅토밸리 건강대축제가 지난 23일 빅토빌예수마음교회에서 개최됐다.

빅토밸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잔치 ‘건강대축제’가 지난 23일(주일) 오후 빅토빌예수마음교회(담임 김성일 목사)에서 개최됐다. 세계의료선교회(회장 김인철

목사)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대축제에는 지역 주민들뿐 만 아니라 인근지역 한인들도 참여 교회(담임 김성일 목사)에서 도 받는 등 알찬 시간을 보냈다. 이날은 무료 독감예방 주사를

비롯해 혈액검사, 내과, 안과, 치과, 부인과 등 다양한 검진과 상담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온열기 체온, 무료이발 서비스 등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성일 목사는 “다민족 의료진들이 참여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호응 속에 무사히 질서있게 마무리되었다”며 “이 축제를 위해 협찬해 준 지역사회 리더들과 섬겨준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성도들,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빅토밸리지역 건강대축제는 샌버나디노카운티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성일 목사)가 주최하고 빅토빌예수마음교회가 주관했다. <박상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오는 3월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가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3월 25일 저녁 6시 LA교육문화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은 특히 실

민사회의 관심을 이끈 ‘하늘꽃’연극도 공연된다. 이어 소망소사이어티는 3월 26일 워셔프라이드 호텔에서 창립 3주년 갈라파티를 기념한 소망우물 감사행사가 열린다. ‘소망우물’은 소망소사이어티와 굿네이버스,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아프리카 차드지역에

100개의 우물을 판 것이다. 100개의 우물을 파기위한 기부와 그간 얽힌 감동적인 사례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에 소망소사이어티는 학술대회 및 갈라파티를 운영하고 보조할 인원(Volunteer certification) 선착순 5명을 모집한다. 아울러 실버연극 ‘하늘꽃’의 배우와 스태프도 모집 중이다. 문의 : (562)977-4580 <박상미 기자>

150명 세계태권도사범 지도자연수 받아

태권도 국가원 공인 사범자격증을 위한 세계태권도사범 지도자연수과정은 지난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더블트리호텔에서 개최됐다.


오는 2월 12일(토) 사범 지도자 자격증을 받게 되며, 국가원 강원식 원장이 자격증을 직접 수여하기 위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국가원 강원식 원장을 비롯해 임춘길 부원장, 이종관 연수처장 외 5명의 강사들의 지도로 진행된 연수과정에서 총 150명이 교육받았다. 이들 150명은

이번 연수과정은 제각기 다른 품세를 지도하는 왜곡된 지도자들의 교육을 바로잡고 아울러 태권도 지도자의 품위를 격상시키며 태권도의 정통성을 일깨워 주기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국

기원에서 공인하는 사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본 연수과정은 캘리포니아태권도무도연맹(회장 고창세)이 주관했으며, 미국 올림픽위원회 산하 공인단체인 미국태권도협회(USAT)와 미국태권도무도연맹(MAC)이 후원했다. 홈페이지 : www.cataekwondo.com(캘리포니아태권도무도연맹) <박상미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가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HYUNDAI |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제30대 오렌지 카운티 목사회 회장 이취임식 및 자문위원 위촉식

이임: 박대근 목사 (29대 O.C 회장)
취임: 손태정 목사 (30대 O.C 회장)
설교: 박동건 목사 (C.R.C. 교단 한인 대표)

- ◆장소: 예수 비전교회
- ◆일시: 2011년 1월 29일(토) 오후 5시
- ◆주소: 10660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세계성경장로교회



예배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담임목사 : 강신권



“기독교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90504
Tel. 310) 793-2297**

성공회 대주교 회의, 이번에도 동성애 논란 속 개최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세계 성공회 대주교 회의가 미국 성공회에 반대하는 뜻으로 일부 대주교들이 회의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에서도 영국 더블린에서 25일 개최했다.

총 38개 세계 성공회 교구를 대표하는 대주교 가운데서 보수주의 지도자 10명 가량은 앞서 동성애자 주교와 동성혼을 인정하는 캐서린 제퍼츠 서리 미국 성공회 수좌주교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그러나 이들의 불참은 미국

성공회에 대한 반대이지, 세계 성공회나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에 대한 불만의 표출은 아니라는 점을 세계 성공회 사무총장인 케네스 키

보수파들, '동성애 포용' 미국 성공회에 항의 뜻으로 불참

어린 주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했다. 미국 성공회는 2003년 게이인 진 로빈슨을 주교로 임명하면서 세계 성공회 내에 파문을 일으켰으며, 작년에 두번째로 레즈비

언인 메리 글래스폴을 주교로 임명했다. 세계 성공회 내 보수주의자들은 동성애는 성경 진리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 보수주의자들과 동성애에 보다 포용적이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자들 간의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교단 분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세계 성공회 지도부는 2004년에 이

문제에 대한 모라토리엄 결정을 내려 놓은 상태다. 그러나 미국 성공회는 올해 초 매사추세츠 주에서 두 레즈비언 사제들의 결혼식을 허용하는 등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수주의자들의 불만도 고조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번 대주교 회의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주요 안건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고 키어런 사무총장은 밝혔다. 회의는 오는 30일 기자회견과 함께 폐회할 예정이다. (손현정 기자)

파키스탄 사형 선고 여성, 자살 폭탄 테러 위협 받아

파키스탄에서 마호메트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성 기독교인 아시아 비비(45)가 감옥에서 자살 폭탄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비비의 석방을 주장하던 유력 정치인 살만 타세르 펀잡 주지사가 그의 이같은 입장에 불만을 품은 무슬림 경호원에 의해서 살해될지 얼마 지나지 않은 뒤의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 현지 이슬람 무장단체는 비비가 수감되어 있는 셰이쿠푸라 감옥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할 계획



을 밝히고 나선 상태다. 이 감옥에는 비비 외에도 131명이 신성모독법 위반으로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법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실제로는 대부분인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 판

결을 받아 왔다. 목숨을 잃는 이들의 다수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비비 역시 항소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비비가 여성으로

서는 최초로 신성모독법에 의거해 사형 선고를 받은 이래 신성모독법의 부당함을 제기하며 법의 개정 내지는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성모독법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성직자들은 비비를 법대로 사형하지 않을시 시민불복종까지 감수하겠다고 반기를 들고 있으며, 비비를 죽이는 이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손현정 기자)

로버트 박 "성고문보다 북한 인권을 다뤄 달라"

로버트 박 선교사가 자신의 성고문 장면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가 북한에 존재한다고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로버트 박을 보내면서 '로버트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전 세계에 보여주자. 우리(북한)가 승리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나가면 바로 자살할 거라 예상했다는 것. 박 선교사는 "솔직히 지금도 그들이 무섭다"면서도 "하지만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을 생각하면 죽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이 그 테이프를 세상에 퍼뜨려도 상관없으며, 사람들이 나를 더러운 사람으로 보고 내 관계는 더 망가지겠지만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선교사는 "성고문 같은 가십거리보다 북한인권 문제를 우선 다뤄달라"며 "북한에

서는 지금까지 3백만명 이상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등 홀로 코스트 이후 가장 큰 집단학살이 이뤄졌고, 김정일은 거액의 지원금을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무기 개발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2천만 주민들을 인질로 붙잡고 전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그들의 존재는 한국인과 세계인 모두의 책임"이라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역사가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며 "내 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책임을 느끼고 북한 해방을 위해 다함께 행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웅 기자)



북한 주민들을 위해 북한으로 들어갔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나온 로버트 박 선교사. (이대웅 기자)



러시아 잇따른 대규모 테러, 기도 요청돼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 세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현지 한인들과 교회, 선교지를 안전을 위한 기도가 요청되고 있다. 24일 테러가 발생한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은 러시아에서도 가장 이용객 수가 많은 데다 강력한 폭발물로 인해 인명 피해가 현재까지 적어도 35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 당하는 등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당국은 현장에서 북캅카스 출신으로 추정되는 30대 아랍계 남성의 시신이 일부 발견된 데 따라 테러의 배후에 이슬람 과격 단체와 체첸 반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작년 3월에도 모스크바 지하철에서 대규

모 테러가 발생해 40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부상당한 적 있으며, 이는 체첸 반군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북캅카스는 러시아 남부 이슬람 지역으로 체첸 반군과 공조를 통해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테러를 자행해 왔다. 여기에는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인 소수 민족 정책도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러시아는 잇따른 대규모 테러로 인해 국가 보안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번 공항 테러로 인한 한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으나,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한인 사회와 교회, 선교지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손현정 기자)

결혼과 영주권 신청 합쳐서 \$700

- ▶ **싼요금 이혼 \$250부터**
- ▶ **속성 결혼신고 \$130** • 가족초청 \$190
- ▶ **영주권 수속 \$600** • 이혼변경 \$290
- ▶ **시민권 수속 \$100** • 공증 \$10

20년을 길은 정소에서 영주권 3000건
이혼 2500건 이상을 완벽하게 처리한 사무실임

각종 이민 수속, 각종 소송서류, 민역, 전과기록 정리
주정부 이민센터 #CF3512 LA에서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가교파 김경일 법무사 (Lic#0504)
T.(213)-252-0000
3540 Wilshire Bl.#318, L.A., CA 90010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1월 31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턴)

월드비전, 아이티 지진 구호 활동 1주년 보고서 발표

금세기 사상 최악의 자연 재난으로 손꼽히는 아이티 지진 발생 1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기독교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은 32쪽에 달하는 '아이티 지진 구호 활동 1주년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초기 구호 활동 현황과 향후 진행될 중장기 재건 사업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아이티 지진 사태에 대한 지진 구호 활동 현장

특히, 이번 보고서는 지진 발생 후 많은 단체, 기관 등이 피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긴급구호활동 및 재건 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서,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전문성이 가져온 성공모델로서 후원자와 국

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티 지진 구호 활동 주요 성과 하이라이트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세계식량기구(UNWFP), 해외원조개발처(USAID) 식량 배급 기관으로 선정, 186만 이재민에게 구호 식량 제공
- 식수(18,960,000 리터) 132,153명에게 제공
- 22개 아동 보호 구역(Child-Friendly Spaces) 설립, 5,653명에게 서비스 제공
- 비식량 구호 물품 350,448명에게 제공
- 총 12개 의료 진료소 운영, 기초 의료 서비스 제공
- 반영구적인 전환 주택 620세대 건설

한편, 박준서 월드비전 아시아안후원 개발 부회장은 "자연 재난 긴급구호활동의 성공은 현지 정부와 유엔의 긴급구호 리더십을 중심으로, 피해 현장에 투입된 구호 기관들의 일사불란한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만, 이번 아이

티 긴급 구호 사업은 아이티 정부의 기능 마비로 인하여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긴급구호활동 난항과 이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중장기 재건 사업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비전문, 미등록 구호기관들의 무분별한 활동과 중복 지원 등의 비전문적인 구호 활동 그리고 아이티 재건 지원을 약속한 국제사회의 약속 불이행 등이 효과적인 아이티 긴급구호 활동을 저해하는 도전 과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초기 긴급 구호 활동에서 벗어나 최소 5년의 기간을 정해, 중장기 아이티 재건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각 회계년도 마감에 맞춰 지진 구호 활동 보고서를 펴낼 계획이다.

한편, 월드비전 '아이티 지진 구호 1주년 보고서' 한글 번역본은 www.wvkor.org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총 19,400만 달러 모금해 93%를 실질 구호 활동으로 사용

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월드비전에 담긴 아이티 돕기 후원금 총액은 개인후원금과 정부지원금(Grants)을 합쳐 총 19,4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18,100만 달러(93%)를 긴급 구호사업비 집행 그리고 중장기 재건 사업에 배정했다. 또한 후원금 대비 단, 7%인 1,300만 달러를 후원금 모집 경비 및 경장 비용으로 사용하여, 지난 2004년 쓰나미 긴급 구호 당시의 11%를 능가하는 효율적인 집행을 한 것

2011 SFC 청소년 전국대회,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개최

미주 한인 청소년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2011 SFC 청소년 전국대회가 올해 7월 26(화)부터 29일(금)까지 3박 4일간 워싱턴주 타코마 퍼시픽 루터란 대학교(PLU)에서 개최된다.

'더 트루 가스펠'(The True Gospel)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혼탁한 세상문화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케 하기 위해 마련됐다.

SFC 청소년 전국 대회는 기독교 개혁신앙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수련회로 매 대회 때 마다 청소년들의 변화와 회복을 주도해 왔다.

또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형 청소년 집회로 지난 시카고 대회에서는 1천 1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올해 참석인원 역시 1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특히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신앙을 확립시키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는 것에 목적이 있다. 청소년 전문 강사와 세미나, 다양한 행사로 꾸며진다.

(김브라이언 기자)

150여명 밀알 장애인 가족 참석, 이재서 총재 설교, 정택정 총단장 사회

북가주 밀알선교단 단장이 취임식이 16일(주일) 산호세 온누리교회(김영련 목사)에서 150여명의 밀알 장애인 가족 및 밀알을 돕는 교회 성도들의 참여로 은혜 가운데 개최됐다.

만 5년여 기간 동안 북가주 밀알에 헌신했던 천정구 목사(더블린한마음침례교회)에 이어 남가주 밀알에서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이 구원의 은혜마저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북가주의 교회들과 함께 밀알이 연합함으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세가지 '생'로 정의하였다.

첫째는 희생으로 하나님께, 백성들이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웃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영생의 은혜에 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외되어서는 안 됨을 전하며 전도, 봉사, 계몽의 밀알의 3대 목표를 재천명하였다.

북가주 밀알 선교단은 세대교체를 통하여 밀알의 사역이 견고히 세워져서, 변화의 속도를 가능하기 힘든 문화 속에서 오히려 점점 더 소외되어가는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축복의 통로가 넓혀지고 견고하여지길 기대하며 사



(왼쪽부터) 북가주 밀알선교단 신임단장 김정기 목사, 사모, 이재서 총재, 천정구 목사.

북가주 밀알 이취임식 김정기 목사 신임단장

사역 중이던 김정기 목사가 신임 단장으로 부임했다.

정택정 미주 밀알총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1대 북가주 밀알 단장 김산식 목사가 기도의 순서를 진행하였고 이재서 세계밀알연합총재가 설교를 통해 '밀알이 나아갈 길'이란 신임단장은 취임사에서

따라 말과 생각만이 아닌, 행함을 통해 이웃에게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고, 두 번째는 상생으로 교회와 밀알이 북가주의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 짐지며 함께 해야 함을 강조했다.

세번째는 영생으로 비유하면서 밀알의 선교적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을 맞본 성도들이 반드시

역하고 있다.

문의: 408-605-2134 (북가주밀알선교단 단장 김정기)

milal_nc@sbcglobal.net

(임형진 기자)



오토뱅크 Auto Bank

1만달러 이하 중고차만 사고 팝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차를 찾아드립니다. 중반한 워런타기간 / 고정지 지정 정비소 통관 수리 (30%DC)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John Ko 213-908-3308 <http://joencha.com>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I-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 합니다

▶ 모집기간: 2010년 12월1 - 2011년 1월31일까지 (이 기간 특별 우대하여 드립니다)

▶ 모집학과: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2706 Wilshire Blvd 1st Fl, LA CA 90057(월셔와 램파트)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r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rmeduniv.org

변화되기 싫다면 성장도 기대하지 말라

인터뷰

시애틀 리틀치치온더프레리 담임 제임스 김 목사

미국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인 2세 목회자, 제임스 김 목사가 중앙장로교회(담임 한병철 목사) 영어권 부흥회 참석 차 애틀랜타를 방문했다. 그는 1930년대에 세워진 시애틀 '리틀치치온더프레리'를 담임하고 있다. 그는 현 교회에 부임하기 전 트리니티장로교회를 담임하면서 60명 남짓 되던 교회를 400여명으로 성장시키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연달아 90% 이상 백인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들을 맡게 된 제임스 김 목사를 만나 아시아안으로서 백인 미국교회를 맡으며 겪는 도전들과 한인교회를 바라보는 견해를 들어봤다

-아시아안으로, 그것도 한인 2세로 백인교회를 맡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다

그렇다. 흔한 일은 아니다. 전에 담임했던 트리니티장로교회의 경우 부임할 당시 교인 100%가 백인이었다. 내가 교회를 떠날 때는 80%가 백인 계, 20%가 흑인이나 아시아 들로 구성됐다. 지금 담임하고 있는 리틀치치온더프레리에는 97%가 백인계다.

-교인 중 대다수가 백인 계인데, 아시아 담임 목회자를 꺼려하는 분위기는 없나

교회에서 나를 청빙하기로 결정했을 때 몇몇 교인들은 떠날 것이라고 이미 교회 장로들에게 말해 두었다. 예상했던 일이고, 실제로 담임을 맡게 됐을 때 일부는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변화 없이 성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부임한 지 1년 되었는데 숫자로 보면 처음 보다 70명 정도가 늘었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본다.

-현 미국교회를 담임하면서 겪는 도전이나 어려움이 있을텐데

물론 있다. 현재 담임하고 있는 미국교회는 부유하고 나이가 많은 고학력 백인들이 대부분이다. 이 교회는 한 때 1400명 대에 달하는 부흥도 경험했지만, 지난 20년 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떠났고 현재는 300명으로 줄어들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는 점차 다문화권으로 변모하고, 다양한 소득층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백인 부유층 중심으로 교회가 이뤄져 있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시급하다.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비슷한 인종 구성과 비율을 띄어야 한

다는 것이 개인적 신념이다.

앞으로는 부유하지 않은 교인들도 교회에 와서, 집사나 장로로 섬기고 교회를 치리해야 하는데, 여전히 부유층의 기득권이 강해 그들이 잘 양보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다만 지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득층과 인종 구성을 파악하고 그들을 초청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쌓는 일이 우선 과제다.

-60명 되던 백인 계 미국교회를 400명 가까이 부흥시킨 적이 있다고 들었다. 무엇이 부흥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하나

부흥(Revival)과 회복(Renewal)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함께 갈 때 이뤄진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에서의 돌이킴, 회복이 부흥을 낳는 것이라고 본다. 문화는 상관이 없다.

-한인교회 영어권 사역도 한 경험이다. 한인교회 영어권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떤가

한인 교회 내 영어권은 다문화권으로 변모해야 한다. 2세의 경우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 다문화권 친구, 동료와 어울리고 미국식 사고로 생활하다가 주일에는 한인들만 있는 교회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행동이며, 그들 스스로에게도 맞지 않다.

때로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 문화에 대한 배척이나 거부감이 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한인 교회도 주류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실제로 LA 나성영락교회의 영어권을 제외하고 미주에서 성공적인 영어권 한인사역이 없다는



제임스 김 목사(리틀치치온더프레리 담임).

것은 유감이다. 변화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문화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인 교회 내 영어권 사역에서 보는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현 한인 교회 영어권은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없고 대부분 젊은 층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젊은 이의 열정과 인생의 고난과 역경, 실패를 맞본 어린 세대의 지혜가 잘 융합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삶의 지혜를 알려줄 연령층이 비어있다.

영어권 구성 연령층은 나이가 많아야 30대 초반에서 후반이기 때문에, 스스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지혜를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두번째는 대부분은 부유하고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 고생을 모르는 세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교제활동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이민 1세대들은 미국에 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만이 전부가 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모든 한인 2세들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생을 모르고 자란 2세는 하나님이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세번째는 교회 내 리더십 교체에 대한 문제다. 2세대들이 한인교회에서 리더십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인데, 그들에게 균형 있는 책임과 위치를 부여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한인교회 영어권은 절대 성

장할 수 없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변화 없이 성장은 없다.'

-한인 교회 영어권 문제 중에 어른 세대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잃어버린 40대 이상의 2세대는 어떻게 품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방법을 묻는다면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중앙장로교회 영어권 부흥회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많은 한인 2세대들이 교회를 가본 경험이 있고 교회 생활을 해봤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교회 생활에 깊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교회에서 목격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에서 실망하고, 말씀과 삶의 괴리를 느끼고 있다.

많은 아픈 기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전히 계시는가? 여전히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가? 그렇다!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소망을 새롭게 하는 메시지가 이번 부흥회의 주를 이룰 것이다.

* 제임스 김 목사는 PCUSA 교단 내 명망 있는 설교자로 알려져 있으며, 유니온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달라스 빛나리교회 영어권 목회를 하며 한인사역을 감당한 경험이 있다. 이후 미국 트리니티장로교회 담임, 현 시애틀 리틀치치온더프레리를 담임하고 있다.

(권나라 기자)



오픈도어교회는 어른예배가 시작되기 전 어린이들을 강단 앞으로 불러 모아 어린이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애틀랜타 최초의 2세 독립교회, 20주년 맞아

애틀랜타 최초로 세워진 2세 독립교회인 '오픈도어커뮤니티교회(Open Door Community Church, 이하 오픈도어교회)'가 23일(주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 어른 예배 앞서 어린이예배 함께 드려

20주년을 기념해 교회창립 지원 목회자인 로버트 에드미스틴 목사(Rev. Robert Edmiston)가 초청돼 설교했다.

설교를 하기 전, 전체 교인의 절반이 되는 어린 아이들을 강단 앞으로 불러모은 에드미스틴 목사는 부모 세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짧은 메시지를

5분 내 명망 있는 설교자로 알려져 있으며, 유니온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달라스 빛나리교회 영어권 목회를 하며 한인사역을 감당한 경험이 있다. 이후 미국 트리니티장로교회 담임, 현 시애틀 리틀치치온더프레리를 담임하고 있다.

20주년을 기념해 교회창립 지원 목회자인 로버트 에드미스틴 목사(Rev. Robert Edmiston)가 초청돼 설교했다. 설교를 하기 전, 전체 교인의 절반이 되는 어린 아이들을 강단 앞으로 불러모은 에드미스틴 목사는 부모 세대가 지켜보는 가운데 짧은 메시지를

5분 내 명망 있는 설교자로 알려져 있으며, 유니온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달라스 빛나리교회 영어권 목회를 하며 한인사역을 감당한 경험이 있다. 이후 미국 트리니티장로교회 담임, 현 시애틀 리틀치치온더프레리를 담임하고 있다.

(권나라 기자)

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중심으로 한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 1.5세와 2세의 균형있는 리더십 도모

1991년 한국 선교사로 섬겼던故 드와이트 린튼 목사(한국명 인도아)에 의해 세워진 오픈도어교회는 당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린튼 목사의 인도로 성경공부를 한 것이 교회 창립의 시초가 됐다. 현재는 성인 60여명을 포함 아이들까지 130여명이 출석하며 안정적인 교회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장로교(PCUSA)에 소속된 이 교회는 3명의 1.5세 장로와 6명의 2세 집사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3년 간 동교단 밥 브래드베리(Bob Bradbury)목사가 임시 목회자로 섬기고 있다. 존 박 장로(Jon Park)는 "한인 1세의 헌신과 희생 정신, 2세의 글로벌한 선교 마인드가 잘 융합될 수 있는 다리역할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말했다.

(권나라 기자)

컴퓨터 무료 견적, 수리후 3개월 안에 문제 생기면 무료 서비스!!

사이버텍 컴퓨터
www.computer-ctc.com

PC & MAC on Sale! (Compare Price)
- 한/영 키보드 \$1 세일 (12월 31일 까지)
- Ko/En Keyboard \$1 SALE! (sale ends Dec. 31)

컴퓨터 교육! 인터넷, 오피스, 사진반 | 월수금토 / 오전:10시-12시

T. 714-590-9504 아리랑마켓 물 한국일보 2층 (9562 Garden Grove Blvd #Q, Garden Grove, CA92844)

교회 음향, 영상, 특수조명 - 설계, 시공, 판매

기독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도 무선 마이크로!! Open Sale!

- ▶ PG24/PG58 !! 399
- ▶ PGX24/BETA58!! 459
- ▶ SLX24/BETA87!! 799

할인가격 문의 : 213-483-6500

3130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213.483.6500 F.213.483.6501
WEB:www.trinitymediasolution.com E-mail:sales@trinitymediasolution.com

한인교회 새교우 사역은 이렇게

건강한 목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이 매달 한 가지 주제를 정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 에버그린커뮤니티교회에서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다. 이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4CCC다. 2세 한인교회인 에버그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민호 목사가 교회 컨설팅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 '4C' Church Consulting의 약자다. 4C는 Celebration, Congregation, Cell, Core의 약자다. 교회의 대회중, 중회중, 소회중 멤버 그리고 핵심 멤버를 말한다.

강민호 목사는 발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회 정보는 나눌수록 많은 동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누는 자신 역시 많은 도움을 얻는다"면서 "목회 정보를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 넘겨서는 더 많은 아이디어와 자료를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하신다"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이 모임을 이끌면서 에버그린교회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타 교회, 타 교단 등의 자료까지 구해서 참석자들과 나누고 있다.

1월 달 모임의 주제는 "새교우반 운영 방법"이었다. 강민호 목사가 새교우반의 필요와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강 목사는 "시카고의 한인 수를 15만 명으로 잡을 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고작 2만5천명 밖에 안된다"는 사실과 "시카고 한인들이 가장 많이 출석하는 교회는 월로크리교회로 1천5백 명이 그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며 "이 두 사실이 여기 모인 우리 한인 목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물었



이날 모임에 참석한 목회자들. 안창일 목사(임마누엘장로교회), 구본진 목사(은혜와진리교회), 송성자 목사(순복음사랑교회), 강민호 목사(에버그린커뮤니티교회), 강민수 목사(레이크뷰연합교회), 박선식 목사(열린장로교회), 박현수 목사(벨렐장로교회), 남성우 목사(열방교회), 닉 김 목사(리빙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다. 그는 "우리가 무엇인가 놓고 있다. 서로 협력할 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교우반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로, 성도들에게 교회 및 교단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우며 교회

고 감사한다. 그러나 새교우반이 발생시키는 문제도 있다. 먼저 새교우반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과 거친 사람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돼 교회가 하나됨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모두 다른데 한 클래스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다. 예배

된다"고 밝혔다. 이날 새교우반에 관해서 참석자들은 그 장단점과 운영 방법에 관한 진지한 토론을 하며 각자 교회의 사례를 나누었다. 특별히 참석자들은 성경공부에 비해 한인교회에서는 활성화 돼 있지 않은 새교우반에 관한 정보에 서로 귀를 기울였다. 송성자 목사는 "그동안 한인교회들이 성경공부에 주력하거나 혹은 성경공부에 집중해 새교우반을 운영에 왔는데 새교우반 그 자체의 필요에 관해 좋은 지적이 오고 갔다"고 평했다.

새교우반을 활성화 해 목회하고 있다는 강민수 목사는 "성경에 관해서는 굳이 새교우반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새교우반에서는 교회의 역사, 기초적 복음 제시 등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2월 모임에서는 예배 스타일에 관한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오고 간다. 이 모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무료다.

문의) 847) 942-1671
(김준형 기자)

4CCC 주최로 매달 컨설팅 모임

사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새로 교회에 방문한 이들이 교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며 교회 멤버로서의 자격과 혜택, 책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에버그린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새교우반을 수료해야만 출석 멤버에서 정식 멤버가 되며 정식 멤버만이 교회의 주요한 일에 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에버그린교회는 총 2-6시간가량 새교우반에 참석하게 되며 끝난 후에는 교인으로 등록하는 서약서를 쓰고 담임목사 등 교회 리더들과 면담을 한다.

그리고 대예배 때 수료증을 주며 정식 멤버가 된 것을 축하하

그린교회는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교회 이전 등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출석 교인들도 출석 교인이라 밝힌 전제 하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일정 기간 이상 출석해 그 사람에게 대한 영적 성숙도 파악이 끝난 후에 새교우반에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강 목사는 "새교우반을 마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한 구역 혹은 셀로 묶여지게 되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 높고 사역 참여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특히 한인교회의 경우,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 담임목사의 집에서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성도들의 정착에 큰 도움이

심리학으로 분석하고 말씀에서 해답찾는 "나의 성격 이해와 성숙해지는 법"

지난해 2월 시카고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심리학"이란 집회로 선풍적인 호응을 얻은 한성열 고려대 교수가 올해 다시 시카고한인교회에서 "나의 성격 이해 및 성숙해지는 법"이란 주제로 집회를 인도한다.



한성열 교수

한국 심리학계의 권위있는 학자이면서 동시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그의 집회는 철저히 크리스천들이 처하는 삶의 현장에서 시작된다. 결코 재미있지만은 않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그는 구수한 입담으로 웃음에 담아 하나 하나 풀어간다. 청중들은 이 이야기들에 폭소하지만 속으로는 "저거 내 이야기 아니야"할 정도로 뜨겁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저 문제가 내 문제구나" 할 정도의 고백이 나올 때가 되면 그는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다. 각종 이론과 조사, 통계 등이 제시된다. 삶의 문제가 학문을 거쳐 체계화되는 순간이다. 학문적으로 분석된 삶의 문제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그때 곧장 최 교수는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 삶의 문제를 학문이 분석해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해결은 못해 주기 때문이다. 성경의 말씀으로 심리학이 제기한 문제들에 답하면서 그의 집회는 끝난다.

성격 성숙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3일간의 특별 집회 전에는 목회자와 사모, 소그룹 인도자 등 교회 지도자들과 상담관심자를 위한 특별 세미나가 3일에 걸쳐 이뤄진다. 한성열 교수는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해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시카고로 유학하고 시카고대학교에서 석사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 교수이며 한국 사회문제심리학회 회장, 치유상담협회 부회장, 자살예방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특별 집회 일정〉
2011년 2월 4일(금)~6일(일)
4일(금) 오후 8시 성격의 정의와 구조
5일(토) 오전 6시 성격 성숙의 과정과 특징1
오후 8시 성격 성숙의 과정과 특징2
6일(주) 오후 2시 성숙해지는 법
특별세미나 일정
상담의 이론 및 실습, 상담을 교육하는 방법
2011년 2월 1일(화)~3일(목)
대상: 목회자, 사모, 소그룹 인도자, 상담 관심자
등록비: 일반 100불, 본교인 60불(점심포함)
문의)847-359-1522(시카고한인교회)
(김준형 기자)



시카고기독교합창단 2010년 연주 장면. ©기독교일보 DB

연평도 주민 위한 사랑나눔음악회

시카고 동포들이 북한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연평도의 주민들을 돕기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주최측 시카고기독교합창단과 중앙일보의 "후세들에게 조국의 아픔에 동참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국가와 핏줄의 중요성을 다

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시카고기독교합창단은 이밖에도 싱글맘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랑나눔음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휘자 전성진 목사는 "북한의 만행으로 인해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동포들을 위해 시카고 한인들의 사랑을 모을 계획"이라 밝혔다.

(김준형 기자)

여드름 고민 해결!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T.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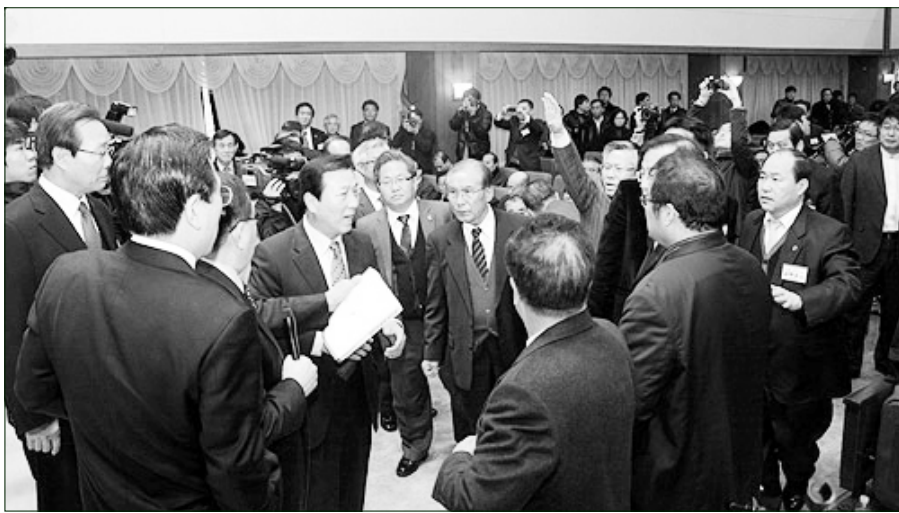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 | | | | |
|---|--|--|--|
| 갈릴리션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합세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경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 갯스월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부 오후 8: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1130 N. East St, #22 Anaheim, CA 92805
T. (714) 991-9881 / (714) 699-0210 |
|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 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
|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
|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영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학교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
|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 리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고등부 오전 11:30 새벽기도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http://www.visioncc.org |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 90012
T. (213)-975-1111 / F. (213) 975-1357 |
|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문화 4기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선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
|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진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오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전 10:4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40 주일학교 오전 10:45, 오후 12:4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9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
| 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금요찬양집회: 매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요일-금요일
영어예배 오전 10:15 오전 5:15 30분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2:30 주일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
|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 영성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염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
|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rcoc.com |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
|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십일) 수요예배 오후 7:45
정오 12:30 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

[해설] 초유의 한기총 대표회장 인준거부 사태

‘선거’와 ‘인준’이 이원화된 현 정관 개정돼야

한기총 정기총회가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 문제로 전에 없던 파행을 겪었다. 의장인 이광선 목사가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아있던 총대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길 목사를 인준했지만, 적법성 논란으로 인해 자칫 감리교 사태처럼 정치화·극단화될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파행을 겪은 이후 지금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의 많은 관계자들은 이광선 목사와 길자연 목사 등 한기총 지도자들이 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같은 갈등 상황의 원인을 면밀히 살핀 후,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 최고의결기구인 총회가 아닌, 실행위에서 선거 치르는 한기총

물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은 대표회장 선거를 실행위에서 하도록 한 정관이다.

총회는 보통 1년에 한 번 열리는 데다가 많은 수의 총대들이 모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대다수의 교단과 단체들은 ‘임원회’를 두어 주요 업무를 위임한다. 그리고 선거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대부분 총회에서 이를 진행한다.

그러나 한기총의 경우 총회와 임원회 사이에 분기별로 열리는 ‘실행위원회’를 하나 더 두고 있으며, 실행위에

서 선거를 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표회장 당선자가 한 번 더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실행위원회 역할과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실행위나 총회나 주로 참석하고 발언하는 이들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이를 별도로 두다 보니 업무와 논의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뿐 아니라 비용과 에너지가 낭비된다.

심지어 이 절차를 악용해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결정과 활동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이들이 임원회와 실행위원회, 총회에서까지 집요하게 배후 공작을 펼침으로써 무력화시키려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번 사태 인준 거부 사태 역시 하나의 전례가 되어 선거 낙선자측이 총회 때마다 인준을 거부하는 해프닝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총회에서 선거 치르자는 정관 개정안 시도했으나...

이같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지난 제21회기 중에 있었다.

대표회장 취임 당시 ‘아름다운 개혁’을 표방한 이광선 목사는, 이를 위해 변화와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 이하 변발위)를 구성하고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당시 개정안에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실행위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선거를 하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은 많은 반발에 부딪힌 끝에 극히 일부만 수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때문에 이번 제17대 대표회장 선거는 기존 정관대로 실행위원회에서 치렀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길자연 목사였다.

물론 길 목사가 반대한 이유가 선거를 총회에서 치르게 하자는 내용 때문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당시 정관이 개정됐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 이광선·길자연 목사와 원로 지도자들, 화합에

앞장서야

다행히 이광선 목사와 길자연 목사 모두 한기총의 변화와 이를 위한 정관 개정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길자연 목사는 총회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한기총 정관을 개정해 다시는 법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 역시 지난해 정관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이 있다. 어느 때든 기회가 오리라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조각 난 한기총의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키 멤버는 누가 뭐래도 이 목사와 길 목사다.

두 사람은 사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화합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로들과 지도자들도 편가르기와 줄서기가 아니라 화해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류재광 기자〉

흔들리던 기하성, 3년만에 사실상 대통합

오랜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안정을 되찾았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기하성 서대문측(총회장 박성배 목사)은 24일 오산리최자실기도원에서 개최된 각자 임시총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헌법을 확정짓고 기하성연합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12일 실행위에서 ‘70세 이상 임원 금지’ 등의 조례를 추가, 채택한 것으로 전해져 의문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서대문측 임시총회에서 박 총회장은 지난해 12월 서대문측 실행위에서 채택한 통합 헌법에 실수로 해당 조례가 누락됨으로 인해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동일한 헌법 채택, 빠르면 5월 중 완전히 통합

이어 박 총회장은 “교단의 회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해 나가자”고 동의를 물었고 총대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후 이 총회장과 여의도총회측 임원들이 서대문측 총회장소에 들어섰으며 양측 총회장과

2008년 통합을 시도하다 분열된 지 3년만이다. 통합 교단 총회장은 박성배 목사의 양보로 이영훈 목사가 맡기로 했다. 교단 순번제 형식의 올해 한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 이영훈 총회장(우측에서 네번째)과 기하성 서대문측 박성배 총회장(우측에서 다섯번째)이 기하성 연합회 구성에 서명한 후 임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화합을 선포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직도 자연스럽게 이 총회장이 수행하게 된다.

또 양 교단 총회장들을 포함해 구성되는 기하성연합회에서 이외에 절차상 모든 문제와 현안들을 해결키로 했으며, 빠르면 5월 중 완전히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총회 헌법은 교단 운영의 기초석으로, 단일 헌법으로 통일 과정에서 이견이 계속돼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말 합의점을 찾아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여의도총회가 지난

임원들은 총대들의 힘찬 박수와 지지 속에 연합회 구성 합의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화합을 선포했다.

단 위에 선 이영훈 총회장은 “성령께서 주님 안에 하나되게 하셨다”며 “성령운동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 박 총회장은 “교단 회복을 위해 이영훈 목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며 “아름다운 오순절 성령운동을 다시 일으키자”고 전했다.

〈송경호 기자〉

자동차! 도네이션

남가주 지역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도네이션 자동차] 수혜자: 최인후 전도사 (영암장로교회)



비상구국 금식기도회 참석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전용태 장로)가 주관하고 국회조찬기도회, (사)국가조찬기도회, 의회선교연합이 주최한 ‘2011 나라와 민족을 위한 비상구국 금식기도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도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도회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구제역 발발 등 국가적 위기와 재난에 직면한

할을 감당하지 못한 데 있음은 고백한다”며 “우리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범죄로 여기고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했던 은혜 미야처럼 나와 내 집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한다”고 이번 기도회를 열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설교는 새에덴교회 소감석 목사가 전했다. 소 목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맞았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그리고 최근 벌어진 구제역 재난은 민족을 통곡케 한다”며 “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가. 바로 나 하나 때문이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목사는 또 “우리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며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바로 그곳에 우리 민족의 희망과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격려사를 전한 노승숙 회장은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비상시국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만행과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안보와 환경위기까지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전 장로는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와 영적인 비상사태는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그 역

(김진영 기자)

한국선교 2011년은 질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해

한국 선교계가 2011년을 질적 성장, 즉 성숙으로 나아가는 해로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KWMA) 한정국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서울남교회(김영휘 목사)에서 열린 제21차 정기총회 이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KWMA의 올해 비전을 이

선교계의 미성숙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위기관리 문제를 보여줬다고 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한국 선교계는 3년여간의 노력 끝에 선교사 위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위기관리재단을 지난 12월 발족시키기도 했으며, 다음 주 내로 사단법인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선교 모델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그는 밝혔다.

끝으로 KWMA는 올해 동반사역의 강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한 사무총장은 전 했다. 즉 선교 협력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한 사무총장은 “KWMA는 최소의 조직을 유지하되 회원 교단, 단체들에

인 성장은 예상된다고 그는 밝혔다.

집계는 50개 교단과 177개 선교단체의 총 227개 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개별 교회에서 파송하거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떠난 수까지 합하면 30% 가량 더 많은 최대 3만여 명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한 사무총장은 밝혔다. KWMA의 통계에는 단기 선교 사역자는 포함 되어 있지 않다.

이번 통계 결과 두드러진 점으로는 한 선교사가 교단과 선교단체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이중 멤버십의 감소를 들었다. 이는 교단 선교부가 점차 전문성과 인력을 확보하면서 선교 단체에 선교사 관리 감독을 위탁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사무총장은 설명했다.

이외에 파송 순위 상위 10개 교단(예장 합동, 예장 통합, 기감, 기하서 여의도, 기침, 예장 대신, 예장 백석, 기성, 예장 합신, 기하성)이 있었으며, 10대 선교단체는 한국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국제대학선교협의회(CMI), 인터콥(InterCP), 예수전도단(YWAM), 한국대학생선교회(CCC), WEC국제선교부한국본부, 바울선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GMP) 순으로 드러났다. (손현정 기자)



제21차 정기총회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KWMA 계획을 밝히고 있는 한정국 사무총장. ©손현정 기자

이 전했다.

KWMA가 이날 발표한 2011년 1월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에 따르면 현재 169개국에 22,014명이 선교사로 나가 있다. 이는 20년 전 1천여 명에 비해서 약 220%의 성장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한 사무총장은 “이같은 양적 성장의 배후에는 그들이 있는데 그것은 질적인 미숙함”이라며, 2007년 발생했던 아프간 한인 피랍 사태는 한국

KWMA 제21차 정기총회... 선교사 169개국 22,014명 파송

이와 같은 좋은 예를 따라 앞으로는 한국 선교가 질적 발전, 즉 성숙의 추구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이어나가겠다고 한 사무총장은 전했다.

또한 본부 중심의 선교에서 선교 현장 중심의 선교, 다시 말해 한국 중심에서 필드 중심의 선교로의 이행이 필요하며 상향화된 전략 개발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다시 말해 한국 선교사에 맞는 한국형 선교 모델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서구 선교 모델을 반복하기보다는, 한국형 모델의 정립을 이뤄나가야 할 때라는 점을 한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120여 년 만에 미국에 이어 최대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된 한국의

게 유익한 아웃소싱을 최대한 하는 구조를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이같은 동반사역의 일환으로 최근 이 전한 KWMA 회원 일부를 뜻하는 단체들과 공유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11년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 통계에 대해 한 사무총장은 “한국 선교의 양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고 10년 내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개관했다.

최근 수년간 선교사 수는 2006년 14,896명에서 2007년 17,697명으로 가장 큰 증가를 보였으며, 이후 2008년 19,413명, 2009년 20,445명, 2010년 22,014명으로 증가 수가 전년 만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있지만 계속적

기독교인의 ‘단골’ 명절 고민, “제사 드려야 하나?”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제사 참석을 거부한 윤모(28) 씨가 불교를 믿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을 당해 패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판결은 ‘기독교인의 제사’ 문제가 부부의 이혼 소송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제사 문제와 관련, 한국교회가 타종교 혹은 사회문화와의 ‘대결적 양

상’에서 벗어나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혁 목사는 “종교간 갈등을 대결로 푸는 건 옳지 않다. 제사를 드리지 말자 하면서 다른 종교의 풍습을 마귀적이라 몰아세우는 투쟁적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사상을 차릴 수도 있고 제사음식을 만들 수도 있다. 바

울도 제사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절은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본질이 아닌 부분에서 양보한다면 상대방도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조성윤 교수는 “가톨릭의 장례식장을 모니터해 본 적이 있다. 아주 장례식을 정성들여 잘한다. 온 가족을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며 “(개신교의) 추도회가 전통적인 형식과 부딪히고 있다. 조상을 모시는 걸 지금은 이상수배라고 보는 시각은 적지만 형식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회들이 사실 이 문제를 언급하면 논란에 휩쓸리고 이단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요즘 크리스천 가운데 제사를 이상수배나 조상신 숭배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질까”라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속으로는 제사를 이상수배로 여기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전통 제사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새로운 추모예배 보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영광빛복음교회



담임목사 : 우대권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기독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혜성

예배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기독일보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1200 W. Alvarez Ave, Orange CA92868

Tel. 213) 291-5901 / 714)833-2568

1829 S. Western Ave. LA, CA90006

Tel. 323)732-7356 / C. 818)993-3574

박종길 칼럼



박종길 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종종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삶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전도사일 때, 교

니다. 하지만 해부를 하는 학생들과 대화도 하고, 설명도 들으면서 몰랐던 많은 것을 생각으로가 아닌 눈과 손, 마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해부학 시간을 참관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의대생이나 특별한 직업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인데, 제가 감사하고, 겸손하기 보다는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들만 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훨씬 깊고, 높은 많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필립 안시가 쓴 "기도"(청림출판)라는 책에 보면 중국에서 교회 활동을

오 하나님, 저를 가르치소서

역자들이 의대의 해부학 시간을 참관하는 훈련이 있었는데 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약속과 일을 그날 만들어서 해부학참관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교회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는 봉고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 해부학참관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수 없이 병원에 들어가게 됐고 해부학 참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참관한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오래, 더 많이 보게 해달라는 하 목사님의 부탁이 있었다는 원장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는 머리에서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전도사 때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부터, 왜 미리 안 말했거나 하는 원망에서, 그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내가 어찌 하나님의 눈을 피하리오, 하는 고백까지 많은 감정의 교차가 있었습

중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3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지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 걸וות 한 장만 걸치고도 혹독한 추위 속에서 단 한 번도 감기나 독감에 걸린 일이 없다는 간증을 하는데, 저자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정작 그 감옥에서 풀어주시기를 간청하는 무수한 성도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응답을 받든 말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모두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의지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통의 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고 좌절 되십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이룸으로 기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성수 칼럼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날마다 기본을 다집니다. 기본이 잘되면 그 기초위에 튼튼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세상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앙은 사람에 관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성경을 일 년에 한번 이상 통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

간만 나면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자주 나와야 합니다. 새벽기도는 신앙 시작에 불과하고 낮에도 저녁에도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싶는데 성경이 안 읽어져요. 바쁘다는 핑계로, 잘 이해가 안돼서, 성경 안 읽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누가 제일 많이 읽을

발견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제가 10년 동안 읽었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소개합니다.

며칠 전 어느 권사님 집에 심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주

교회사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1842년 자신이 목양하던 성베드로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개발한 것으로 매일 하루에 구약 2장, 신약 2장을 읽어서 일 년에 구약 1회, 신약과 시편은 2회를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맥체인식 성경읽기는 구약의 처음인 창세기와 중간 부분인 예

예수가 기준입니다

신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으니 감동적이예요." 당신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나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맥체인식 성경읽기(M'Cheyne's Calendar for Daily Readings)는 성경읽기, 성경통독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설교자인 로이드존스는 평생 동안 맥체인 성경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존 스토트는 로이드 존스에게서 소개를 받아 지금까지 약 40여 년 동안 이 방식에 따라 성경을 통독해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1813~1843)은

스라, 그리고 신약의 처음부분인 마태복음과 중간부분인 사도행전의 4곳에서 동시에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읽기 방식과 순서의 차이는 많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매일 구약과 신약의 여러 장르의 성경을 골고루 읽게 하기 때문에 성경읽기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수 1:8)

를 뜻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X세대를 말한다.

교회가 문화에 뒤처지고 젊은 세대와의 접촉을 잃었을 때 일어났던 구도자 중심 운동은 영미권 지역에서는 이미 이머징(Emerging)세대와 단절됨에 따라 오히려 시대에 뒤처지게 되었다. 이에 초대교회의 전통적 기독교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는 문화적 흥수 속에

이현국 칼럼



이현국 목사
미주 대한신학대학및대학원

이머징교회- 예배란 무엇인가? 마르바 덴(Marva Dawn)은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휘에..완전히..잠기는..것"이라고 말했다. 예배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응답의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만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worship)"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이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성만찬'이라는 두 가지 큰 틀을 가졌다.

종교개혁 전까지는 '성만찬'의 강조로 인해 성찬 빵과 포도가 축도의 순간에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이 정착되었고 이러한 '성만찬'의 강조는 말씀보다는 '성찬'과 다른 예전을 중요시하여 예배자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말씀'과 '성만찬'에 복귀하고자 말씀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말씀의 강조는 또 다른 불균형을 불러일으키어 종교개혁 이후에는 오히려 말씀에 강조를 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과 '성만찬'의 불균형의 전통예배의 부정적인 모습 속에 동시대에 문화를 받아들인 예배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예로 윌로우 크릭교회의 구도자 예배를 들 수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 매체들을 사용하여 성경의 진리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결단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예배이다. 한국교회 열린 예배라 불리는 예배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도자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기보다는 구도자를 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엄밀히 예배라기보다는 집

회에 가깝다. 기독교 전통적 세계관과 다른 포스터 모더니즘영향 속에서 진리의 절대성과 객관성을 부정하는 다원주의, 상대주의, 해체주의, 감각적인 문화의 새로운 세대인 이머징(Emerging)세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댄 김볼(Dan Kimball)은 말한다. 여기서 이머징(Emerging)이란 새로운 세대

현대교회의 새로운 예배의 흐름(I)

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본질로 돌아가 초대교회와 같은 동일한 성장을 보자는 것이다.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이와 같은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포스트모던 문화는 문화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21세기 교회가 지향해야 할 EPIC 모델을 제시한다. (계속)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현순호 칼럼



현순호 목사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지역 한인교회 총무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게 싸우는 장면을 본 한 노인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싸우려거든 국회나 교회에 가서 싸워"했다는 루머는 서민들의 소리요 또한 하늘의 소리다. 요즘 교인들이 모이면 서울의 소망교회 이야기로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7만여 명의 교인이 모이고 현직 대통령이 출석

하고 한국의 이름 석자 대면 다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그곳에서 거룩한 주일 1부 예배가 끝나고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당회장실에 들 어간 현직 부 목사와 전직 부 목사가 문을 잡고 당회장을 코뼈가 부러지게 폐고 짓밟아 4주간

죽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명예욕으로 인한 총회장 선출에 쓰는 천문학적 돈 잔치, 당회장의 권력 남용, 지지분한 스캔들과 지방색이 난무하는 종교 정치꾼들의 장난 등등...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크고 작은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성실한

경고도 하셨다. 또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혀 밝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라는 것이다. (참고 마5:13-16) 사실 그 말씀을 따라 운영되는 교회가 많지만 근래에 들어 그 원래의 모습이 퇴색되어 조금의 맛과 빛을 잃은 교회가 더 많

데 그 뜻과는 다르게 교인들이 4파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일반인들과 다를 것 없이 사치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을 본 바울은 너무도 실망해서 회개하고 울바른 성도가 되라고 여러 번 눈물로 호소하고 권면과 꾸지람을 했으나 세상 향락에 깊이 물든 교인들은 그 경고를 받아드릴 마음마저 마비되어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을 배척하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정반대의 교회다. 본국에서의 핍박을 피해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먼 나라인 안디옥으로 피난 온 교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다.

빈손으로 모인 교인들이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했다. 먼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 드리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여러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나 습관이 매우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전적으로 몸과 물질로 헌신함은 물론 떠나온 모국이 흉년으로 어려울 때는 모금을 해서 보내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숨어있는 인재들을 찾아서 지도자로 키웠다. 그런 교인들을 본 그곳 원주민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교인이라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 교회는 날마다 부흥이 된 것이다.

꼭 같은 이민 교회지만 어떤 교회는 참 교회의 모습으로 일반인에게 칭찬을 받으며 부흥했고 다른 곳은 많은 인재와 재산을 가지고도 안으로 당과 싸움과 사치, 우상숭배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길가에 버려져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다. 재미 한인교회들은 어디로 갈까?

소망교회 내분을 보면서

의 병원 치료를 받을 폭행을 한 사건을 연일 일간지에서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 하는 슬픈 생각이 든다. 성스러운 주일 낮 목사가 당회장실에서 치고받은 폭행은 누가 들어도 이해 할 수가 없다.

교인들이 더 염려하는 것은 그 일이 어떤 특정한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교계가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풍토를 이번 일을 보면서 더 걱정한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

교인들이 소리없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 마귀가 춤을 추며 좋아하는 일들이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셨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서 생동력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아울러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 때가 없어 길가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아진다는데 교계의 슬픔이 있다. 지금은 일반인들이 교인들을 걱정하고 교인들이 장로들을 염려하고 장로들이 목회자들을 근심하며 염려하는 세상으로 순서가 바뀌고 있다.

고린도 지방은 당시 살기 좋은 자연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항구도시로써 무역이 활발해서 경제적으로 부요한 곳이었다. 사도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워 세계적인 전도의 꿈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그런

보험 칼럼



폴 섀 플레너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한해동안 폴선을 찾아주신 고

보험의 매월 보험료는 \$115.40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대부분의 의사나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의사가 아니라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와 파트B(의사진료혜택)의 플랜은 더덕터블도 많고 치료비용의 약 80%혜택을 받고 시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합니다.

이렇게 20%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지불하시고 메디 갭 즉, 메디케어 별도의 보조보험 가입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처방약 혜택을 받기위해

지원등의 혜택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우디 플랜 HMO는 주치의 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지만 주치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진료와 상담을 받으므로써 큰병으로 진행되는 것과, 약물과다 복용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수십개의 건강보험회사가 경쟁적으로 각각 다른 혜택의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자격을 갖춘 에이전트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선택하시면 비용 절약과 차별화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한요 칼럼



김한요 목사 세리투스장로교회

한국 남자들은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하면 밤새는 줄

속이 후련해지는 것으로 달래곤 했었다. 그렇게 흘러던 눈물도 잠시, 다시 생활전선으로 뛰어나가야 하는 현실을 살아왔다. 하루 일을 마치고 언제 이 지긋지긋한 이민 생활을 마칠것인가 한숨짓다가 불평 섞인 외마디의 기도가 튀어 나온다. "하나님, 어찌 제 손에는 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하루 만이라도 손에 물 안 묻히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질없는 기도인줄 알면서도 사업 하다가 망했다는 아들 소식에 울컥 올라온 기

다. 그러나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며 버텨본다. 한의사가 여기 저기 만지며 아프다고 물어도, 안 아프다고 거짓말하며 침만 며칠 더 맞았다. 그러나 잘 낫지 않는 팔꿈치를 수상히 여긴 한의사가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라고 한다. 다친 지 2주만에 찾아갔는데, 글썽 팔꿈치 끝에 뼈가 좀 부서졌단다.

결국 꼼짝 없이 기브스를 하고 나오는데, 의사가 몇 가지 경고를 준다. "앞으로 기브스 풀 때가 진 목욕하시면 안 됩니다." "...!!!"

손에 물마를 날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모르지만, 고달픈 이민생활은 우리 이민자들의 단골 이야기 보따리이다. 단 돈 얼마 들고 이민을 왔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밭아라 삼천리 재봉틀의 애환, 고층빌딩을 오가면 유리 닦은 이야기, 남의 집 청소에 식당 설거지까지 허리가 휘어가며 억척같이 일했던 이민생활은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뜨이프와~" 따라 부르며 눈물 펄펄 쏟고

도..... 더 이상 잊지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죄송한 생각마저 들면서 기도의 자리를 일어섰다. 다시 일하러 뛰어나가다가 짜다당 보기 좋게 넘어졌다.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십니다. 그런 기도했다고 즉시로 바닥에 내동이치시고....." 일할 땀 몰랐는데, 점점 더 육신거리는 통증이 심해진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하루만이라도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고 싶었다더니,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 3주간 물 안 묻히고 살아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막힌 교훈에 뒤통수를 맞는 듯 했다. "하나님, 매일 이 손에 물 묻히며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사오니, 빨리 손에 물 묻히게 해주세요, 네?"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우대플랜 HMO

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에도 폴선을 시니어 전문 플레너로서 고객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1년부터 달라진 오리지날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메디케어 우대 플랜 HMO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의 혜택은 100% 커버해 주는 플랜이 아닙니다. 파트 A 병원보험의 디덕터블은 \$1,100.00 에서 \$1,132.00 로 인상 되었으며 파트 B 의사 진료

서는 매월 일정금액을 지불하시고 처방약 보험 파트 D 구입을 필요로 합니다. <폴선이 가입을 통해서 전해도 리는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 * 20%의 메디케어 보조보험료를 줄일수 있으며 * 파트D 처방약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며 * 병원 입원시 리덕터블이나, 입원 일 수의 제한이 없고 * 치과, 한방침술,안경,헬스를 럽 회원권, 해외여행시 응급비용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 가입할 수 있는 자격 *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 B를 처음 받으시는 분 *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 B 를 그리고 동시에 메디칼을 갖고 계신분 특히 65세가 되어 처음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B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처방약보험 파트D 가입전에 본 플랜을 확인해 보신후 결정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료상담 : 213-503-6897

Advertisement for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Includes a photo of a man, a table of courses (신학부, 신대원, 신대원 전문), and contact information (www.cds.re.kr, 82-2-3472-3181).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웨이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임과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 불백엔저스 프라이드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에어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문장금 & 타이어 문제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926.1243 / (213)435.5736



Pacific General Insurance Agency, INC.
태평양 종합보험 (주)

▶ 비싼 보험료 때문에 아직도 고민하세요?

저희 회사는 여러분의 사업체와 개인보험 위험을 없앨수는 없지만
보험료 비용은 낮출 수 있습니다. (LIC# 0G17850)

상업보험전문 / 종업원상해보험 / 개인보험 / 생명보험 / 건강보험
호텔, 그로서리, 세탁소, 상가건물, 아파트, 식품마켓, 교회보험, 각종비즈니스, 상업차량, Surety Bonds

☎ 323-378-6213 - Toll Free : 877-393-2311

451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동양선교교회 앞)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0월 29일, 12월 19일 시험대비 CDP 치과기공 면허 응시생 모집
CDT 치과기공 면허 준비반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가을학기 숙성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 전 치과 기공 대학 학생,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LA 케atering

주말 점심메뉴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Church Set (교회용식사) Menu D를 보십시오.

편리한 예약 상담/ 신속한 견적 서비스

www.lacatering.com

- 카레라이스 \$1.00 (1인당)
- 짜장소스 \$1.00 (1인당)
- 유채 콩나물국 \$1.00 (1인당)
- 김자 미역국 \$1.00 (1인당)
- 아재 비빔밥 \$1.20 (1인당)
- 고기 비빔밥 \$1.80 (1인당)
- 육개장 \$1.5 (1인당)

1-800-530-5660 / 1-800-711-077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건과류, 각종 공산품 등)
- 각종 Tea (커피, 등굴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장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리움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 855-5687 / (213) 200-3050

646 S. San Pedro St. LA CA 90014 (산페드로 St, 6가 7가사이)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은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1.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2.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3.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4.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le Ave, #1, Los Angeles, CA 90001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포드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포드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 21일부터

10개 기본창문 (햇빛차단 Low-E)

\$2,699+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방수,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텍, 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CAP CONSTRUCTION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820-3504

결혼꽃 전문 기니꽃집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36년 경력

T. 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1월 31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월드크리스천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대학원 (M.Div) 과정
통신학부, 목사후보생 모집 및 교육
유학비자발행 (방문비자무료변경)

TEL: (323) 734-022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 라노대학교
California university llano

T: 714-490-0065 F: 714-333-4990
520N. Brookhurst St.Ste.120 Anaheim CA92801
www.californiauniversityllano.org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풀러신학교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213-440-0125
1325 12th Ave. LA CA 900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이·이·도·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한국 포함 국제전화 무제한.....

중앙일보/중앙방송 연영 파트너 (www.italkbb.com) [3인스타벅스 선정]
《2년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지금 가입하고 친구추천하면 선물이 팽팡

행사기간 | 1월31일 까지

iPod 4th
Generation 32Gb
+1년 무료

iPad
16Gb Wi-Fi
+1년 무료

주유상품권
\$100
+1년 무료

6개월
무료

3개월
무료

1개월
무료

마이 코리아 넘버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하세요!

글로벌 플랜
\$24.99 /월 TAX 포함

로컬, 미국/캐나다 장거리 +
한국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음성사서함, 발신자표시, 3자간 통화,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 무료제공

아이톡 글로벌
외출 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플랜
\$34.99 /월 TAX 포함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 친구 추천 프로모션은 피추천인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글로벌 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플랜 1년 계약 신규 가입에 한하며, 무계약 플랜은 제외 됩니다. 친구 추천을 1명 하신
경우는 추천인과 피추천인 중 낮은 플랜으로 1개월 혜택이 주어집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

자세한 내용은
1.800.872.2902
http://www.Korea.iTalkBB.com

[디지털시대 우리집 전화]
iTalkBB
에서 확인해주세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정구서 대신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에게는 F.Dm. 할인가에 20%가 부과됩니다. 개인 기간에 서비스를 유지하시는 경우 99.99 미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 동안 할인 받으신 요금액을 환산해 부과합니다. 기타 세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계약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별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하셔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장에 신규 아이템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9-7216** (통화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2011년 신년특별 세일



2010년 지난 한 해 동포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미주 최대 단일 현대 딜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심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2011년 토끼띠 한해도 더욱 고객에 다가갈 수 있도록 판매,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것을 약속 드립니다.

-푸엔테힐스 현대 임직원 일동



2011 완전 새로워진
쏘나타



\$179 (PLUS TAX, 3YR LEASE, TDO \$2,999, 12K MILE/YR, LOYALTY REBAT \$500 VIN # 212326)

2011 대형 세단의
편안함 제네시스



\$299 (PLUS TAX, 3YR LEASE, TDO \$4450, 12K MILE/YR, COMP. REBAT \$1500 VIN # 135719)

2011 크로스오버의
강자 투싼



\$199 (PLUS TAX, 3YR LEASE, TDO \$3199, 12K MILE/YR, REBAT \$500 VIN # 121098)

2011 귀여운 소형
세단 엑센트



\$11,900 (INCLUDE REBATE HMA 500, HMF 1000, COLLEGE 400, MILITARY 500 VIN # 200976)

목회자 자체 용자 및 원가 세일

현재 남가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거나, 없으셔도 자체 용자 해 드리거나 원가 세일해 드립니다. (단, 2010년 pre-owned 쏘나타 한정)

-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

상기 모든 모델을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진심으로 만족 하실 것입니다.

1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이외에도 사고 없는 딜러가 보장하는 많은 중고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원가
공개 세일



2010 HYUNDAI ELANTRA
RED STK P975481 \$13,999



2007 BMW 328i
WHITE STK PZ70863 \$21,699



2007 HYUNDAI AZERA
BLACK STK P185167 \$15,999



2009 HYUNDAI GENESIS
BLUE STK P029231 \$28,990



2010 HYUNDAI SONATA
TAN STK P591753 \$13,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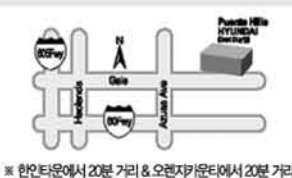
- 매니저가 원하는 중고차 세일 -

- ▶ 2009 ACURA TSX GRAY #196587A
- ▶ 2007 BMW 328XI BLACK #PP31167
- ▶ 2006 BUIC LUCERNE RED #121938A
- ▶ 2007 HUMMER H3 YELLOW #P126552
- ▶ 2008 HYUNDAI AZERA BLACK #P332058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9231
- ▶ 2009 HYUNDAI GENESIS GRAY #P046436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2767
- ▶ 2009 HYUNDAI GENESIS BLACK #P022532
- ▶ 2009 HYUNDAI SANTA FE SILVER #P270753
- ▶ 2010 HYUNDAI SANTA FE RED #P343949
- ▶ 2010 HYUNDAI SONATA COCOA #P601361
- ▶ 2010 HYUNDAI SONATA WHITE #P598307
- ▶ 2008 HYUNDAI VERACRUZ WHITE #P057661
- ▶ 2009 KIA SEDONA GRAY #P296190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9.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한국어 상담
제니 김
☎ 888.644.7114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ive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